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3리 오윤생씨 댁, 김선희 조사.  
오윤생(여, 1932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**[제보자]** 봄나민 도체비엔 헌 게 벨롱벨롱해도 나 눈에는 안 비추와, 게도. 그것도 비추는 사람, 안 비추는 사람이 잇곡. 도체비도 비추는 사람, 안 비추는 사람 하는 구라. 우린 도체비를 헌 번도 못 봐서. 헌 번도.

딱 헌 번 본 거. 나, 도체비엔 헌 거 일생 살앙 헌 번 봤어이. 어디 봤이냐 허문. 그것도 오월 장마. 사람이엔 헌 건 얘기라도 즈꿋디 잇이문 막 의지가 크는 거라. 옛날 막 보리 갈 때난. 이디서 갈 때민 저 어디 감만이나 뉘카? 댜 거리나 뉘코? 하튼이 가름 떨어진 디라이. 떨어진 딴디 넷 에염에 신 밧인디 강 보리 묶으노렌 허난에

“오늘 보리를 몬 묶어 비어사주, 넬은 비 오민 보리 썩어 버령 안 된다.”

허난 우리 톨 그거 으답술에 그걸 돌앙 갓어이. 간 보리 묶으네. 헌 오월에 헌 으답시난에 어슬어슬헛어. 겨난 어둑안 어슬어슬헛에가난에 파랑한 불이 그디 원 동네도 엇고 질도 아닌딘디. 넷 에염으로 존질존질 올라왕 톨 사름굴이 걷는 것 굴이 내터레 톨 들어가는 거라. 그땐 머릿발이 모스완 서는 거라. 이젠 톨더레 모스완 말도 못하고

“야, 가게. 집이 가게.”

“보리 어떻 헤 동.” 허관테

“내불라, 보리 젓고데고.”

집이 그냥 와났저. 그때 헌 번, 딱 본 거. 내 눈에는 도체비는 안 뵈여. 매사름이 어디 가문 봐졌저, 어디서도 봐져라 해도.

**[조사자]** 이 동네 도체비 잘 나는 디는 어디파?

**[제보자]** 도체비 잘 나는 디이, 일로 저러레 쏙 나가민 삼리 넘어사민, 저펜이 가면. 곳사 소곰막. 소곰막이엔 헌 디 있잖아. 이제 저 굴 판매헛어. 옛날이 그디가 젤로 무서운 디라났저. 옛날에 그디 사람은 하영 아니 죽엇주만은. 옛날은 아기들이라도 죽으면 앓당 물어부느네. 그난 그디 사름 안 사는 디고 허난 그디 강 농사 안 짓는 디난 그디 에염더레 그런 걸 앓당 하영 논 생이라. 게난 그디 젤 도체비 하영 난덴 허는 거.

- 핵심어 : 도체비, 벨롱 벨롱, 비추기, 파랑한 불, 소곰막